산업통상자원부 / 전라남도 JeollaNamdo	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otie.go.kr http://www.jeonnam.go.kr

2020년 1월 31일(금) 14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1. 31.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라남도 혁신경제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330)	담 당 자	이재익 사무관(044-203-4332)
	박우육 과장(061-286-3810)		최정운 팀장(061-286-3830)

조선산업 현장 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 개최

-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,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추진현황 점검, 전남지역 조선업계 간담회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20.1.31(금) **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**과 함께 **전남 대불산업단지(대한조선, 현대삼호중공업)을 방문**하였다.

○ 우선, 전남지역 대표 중견·대형조선소인 **대한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건조 현장을 방문**하고,

○ **조선소 및 블록 제작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**하여 「**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**」(18.11.22) 및 **보완대책**(19.4.23)**의 추진현황을 점검**하는 한편, **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**하였다.

【 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개요 】

- **(일시/장소)** '20.1.31(금) 14:30~16:30 / 대한조선, 현대삼호중공업
- **(참석자)** 청와대 경제수석,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, 전라남도 도지사, 정무부지사, 영암군수, 현대삼호중공업, 대한조선, ㈜마린텍, 유일(주), 신우산업(주),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, 대불산학융합원, 조선산업지원센터 등
- **(주요내용)** ① 중견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방문(대한조선)
  ② LNG운반선 건조 및 LNG화물창 생산 현장방문(현대삼호중공업)
  ③ 전남지역 조선업계 간담회(현대삼호중공업)

【 현장방문의 의미 】

□ 지난 16년 수주절벽 이후 **우리 조선업 수주는 점차 회복되는 추세**로, **오랜 불황 끝에 조금씩 업황이 개선**되고 있는 상황이다.

□ 이번 방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**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·대형조선사인 대한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건조 현장을 방문**하여

○ 18~19년 연이어 발표한 「**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**」(18.11.22) 및 **보완대책**(19.4.23)**이 잘 이행**되고 있는지, **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**은 무엇인지,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리였다.

【 대책 발표 이후 성과 】

□ 18년부터 이어진 수주 회복세는 19년에도 이어져, 19년에는 **943만CGT** (점유율 37.3%)**을 수주**하여 **2년 연속 수주 세계 1위를 달성**하였다.

○ 이는 **LNG운반선, 초대형 유조선(VLCC), 초대형컨선 등 우리나라 주력선종의 경쟁력 우위**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였다.

* 19년 우리나라는 全세계 발주 LNG운반선(174k) 51척 중 48척(94%), VLCC 31척 중 18척(58%), 초대형컨선 36척 중 22척(61%)등 수주

□ 정부는 그간 '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' 등을 통해 ①**친환경선박 체제 전환**, ②**중소조선사·기자재업체 등 단기 애로 해소**, ③**중장기 경쟁력 강화**를 지원해왔다.

① 「**환경친화적선박법**」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**관공선 친환경선 건조를 의무화**하고, **친환경선박과 벙커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**하였다. (20.1.1일부터 시행중)

– 또한 주요 항만을 **배출규제해역**(ECA)으로 지정(20.9월 시행)하고, 친환경선박 시장창출을 위해 **LNG추진선 보급 확대**(20-25년 140척)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.

* (18년) 2척 운영 → (19년) 4척 운영 + 9척 건조 중

– 아울러, **중소조선사의 LNG추진선 건조 역량 확보**를 위한 기술, 설계 등 **全주기 경쟁력 강화도 지원**하고 있다.

② **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금융 애로 해소**를 위해 **총 2.7조원*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**하였으며, **19년말까지 약 3.5조원이 지원**되었다.

* 만기연장(1조원), 친환경 유망보증(2천억원), 제작금융(1천억원), 방산보증 제도 개선(1.2조원), 중형조선사 RG(2천억원) 등

- 또한, 조선업의 '**특별고용지원업종**'지정(19.6월→19.12월→20.6월), 조선 밀집지역의 **산업위기지역**(19.5→21.5월), **고용위기지역**(19.4→20.4월) **지정 등을 추가 연장**하였고,

- **조선 밀집지역 순회 일자리박람회 개최*** 등을 통해 조선소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, 친환경·스마트 설계인력 등 **전문인력 양성 규모도 확대****하였다.

* 19년도 일자리박람회 : 부산(3월), 울산(4월), 거제(5월), 목포(6월) 등

** 18년 838명 → 19년 2,263명

- 이를 통해, **조선업 고용은 19년말 11.1만명을 기록**하여, 18.8월 최저점(10.5만명) 이후 **완만한 상승세를 지속**하고 있다.

③ 중소·중견조선소가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**핵심기술, 설계, 영업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수주경쟁력 확보를 지원**하고 있다.

- **중소조선사·기자재업체**를 대상으로 **위기극복 및 혁신성장**을 위한 **기술개발을 지원**하고 있으며,

* 조선산업 부품·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(19년 60억원),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(19년 60억원 → 93억원 확대)

- 중소·중견조선사 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'**중형선박 설계지원단**'을 발족(19.3월), 현재 **45명의 설계인력**이 **설계 프로젝트를 지원**하고 있다.

- 또한, **기자재업체, 중소조선사를 대상**으로 해외 영업 등을 지원하는 **해외수출지원거점**을 지속적으로 **확대**하고 있다.

* (18년:2곳) 상해, 싱가포르 → (19년:4곳) 아테네, 러시아 추가 → (20년:5곳) 러시아 추가 예정

- 아울러, **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분야 3대 예타 사업** 중 ①**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**는 **19.10월 예타를 통과**하여 올해부터 **본격적인 사업 착수 예정**이고,

* (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) 20~25년, 총 1,603억원, 산업부·해수부 공동추진

– ②선박 건조 공정의 스마트화를 위한 **스마트 K-야드 프로젝트**, ③**미래 친환경선박 핵심기술개발도 예타를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**이다.

* (한국형 스마트야드개발) 21~26년, 3,860억원, 20.3월 예타 결과 발표 예정
(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) 21~30년, 6,000억원, 20.2분기 예타 신청 예정

【 행사 주요내용 】

□ 먼저, **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중견·대형조선소**인 **'대한조선'과 '현대삼호중공업'을 방문**하였다.

○ 대한조선(전남 해남)은 **아프라막스(115천톤)급 탱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**하여 동 분야 **수주점유율 1위**를 차지하고 있다.

* 17~18년 세계 아프라막스급 탱커 발주 총 85척 중 대한조선이 22척 수주(수주 1위)

– 19년에는 **아프라막스 4척, 수에즈막스 8척 등 총 12척의 탱커를 수주**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형조선소이다.

○ 현대삼호중공업(전남 영암)은 **우리나라 주력선종인 LNG운반선, 초대형 유조선(VLCC) 등을 건조하는 대형조선소**이다.

– 19년에는 LNG운반선 8척, 탱커 22척, LPG선 2척, 벌커 2척 등 **총 34척을 수주**하여 명실공히 **전남지역 대표 대형조선소**로서 **지역 조선산업, 지역 경제에 기여**하고 있다.

□ **현대삼호중공업, 대한조선 및 블록 제작업체, 기자재업체**가 참여한 **간담회**에서는 **지역 조선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**가 있었다.

○ 우선, 정부의 **'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' 등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**하였고, 이후, **친환경선박 극저온 시스템 실증, 조선산업 인력양성, 중소조선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업체들의 다양한 제언**이 있었다.

○ 정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**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향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**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**은,

○ "우리 조선산업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은 **우리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미래를 준비해왔기 때문**"이라며,

○ "조선산업은 **친환경·스마트화로 패러다임**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**세계 1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통한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**하다"라고 강조하였다.

○ "이를 위해, 정부도 **친환경·스마트 미래 핵심기술개발, LNG벙커링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 구축** 등 **조선업의 미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**하겠다"고 밝혔다.

□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**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**는,

○ "**전남 지역 조선업체**들이 **위기를 극복**하고, **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**하다"고 하면서,

○ "오늘 간담회가 **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전남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해답을 찾는 기회**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하였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재익 사무관(☎ 044-203-43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**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시** : 20.1.31일(금) 14:30~16:30

○ **장소 : 대한조선**(전남 해남) → **현대삼호중공업, 조선업계 간담회**(전남 영암)

○ **간담회 참석자**

– (청와대) 경제수석 등

– (산업부) 제조산업정책관,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등

– (지자체) 전남도지사, 전남도 정무부지사, 영암군수, 해남부군수 등

– (업 계) 현대삼호중공업, 대한조선, 마린텍, 유일, 신우산업 등

□ 주요일정(안)

구분	시간		내용
현장방문	14:30～14:55	25’	• 대한조선 현장시찰
현장방문	15:10～15:45	35’	• 현대삼호중공업 현장시찰
조선업계 간담회	15:45～16:30	45’	• 「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」 및 보완대책 추진현황 점검 • 전남 지역 조선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청취